



장양원 망성농장 대표,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익산시는 장양원 망성농장 대표가 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날 후원된 성금은 다이로움 나눔꽃간에 기탁된 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양원 대표는 지역에서 전북오늘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하림 그룹에서 30년간 육계사육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망성농장을 2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역 불우한 이웃을 돋기 위해 농장 수익의 일부를 다이로움 나눔꽃간에 기탁했다.

장양원 대표는 “현재 망성에서 육계 5만 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수고한 익산시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며 “주변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가득 담은 기부를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남원 도통동, 중앙일렉파워와 복지 향상 협약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와 중앙일렉파워(대표 신창섭)는 지난 5일, 올해에도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도통동 관계자와 중앙일렉파워 대표가 참석,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관내 거동불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등 무선리모컨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창섭 대표는 “관내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덜고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도통동장은 중앙일렉파워 대표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의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지리산복지센터와 밀반찬 제공 추진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지리산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혜진)와 협력, 지역 내 취약계층 40가구에 영양 풍부한 밀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는 지리산노인복지센터의 생활지원과 2명과 운봉읍의 4개 봉사단체(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농기주부회, 의용소방대)가 취약계층 밀반찬 지원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2회 둑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가구에 밀반찬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혜진 센터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두리로드, 무주군에 장학금 300만원 기탁

무주군 무주읍에 소재해 있는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체(주)두리로드가 지난 7일 (재)무주군교육발전문화재단이사장 황인홍(무주군수)에 장학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강동진 대표는 “무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발전과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무주군의 장학사업에 뜻을 보태게 돼 뿌듯하고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마을간 도농간 교류로 하나되는 축제’

제18회 진안군마을축제 발대식… 34개 마을 주민·관계자 등 참석

진안군은 제18회 진안군마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7일 미야산 에코타운에서 마을축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마을축제에 참여하는 34개 마을 주민과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마을간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마을 축제가 되기 위해 서로를 응원했다.

발대식에서는 먼저 지난해 진행된 마을축제 영상 시청과 올해 마을축제의 마을 선정 과정과 축제 주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축제 참여 마을들이 1:1 짹꿍 마을을 직접 뽑으며 1년 동안 교류할 마을을 선정하고, 교류 마을 축제 진행 시 상대편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 마을을 방문해 서로의 축제를 응원하고 모니터링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마을축제는 ‘마을 속 이야기가 무르익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도농 교류, 축제 마을 간 교류, 진안 교육청과의 연계로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등 마들이 하나되는 축제를 만들고 생활인구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인석 마을축제 조직위원장은 “올해 마을축제는 마을간 도농간 교류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점을 만들어 보려 한다”며 “축제 시 교류 마을 간 상호 방문과 응원·격려를 보내고 축제 진행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로 배우고 보완하여 함께 발전하는 마을 축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지역균형발전 공로대상 수상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지난 6일,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균형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등 각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가 주관한다.

이숙자 의원은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회기 중 꿈꾸는 현안 질의와 현장 점검 등에 노력했으며, 스포츠 마케팅 저출산 극복 등 남원시에 활용을 더할 다양한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의정활동이 인정되었다.

이숙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항상 관심과 응원으로 힘을 주신 남원 시민 여러분에 좋은 상을 받게 됐다며, “으로도 소심을 잊지 않고 더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남원=길기두 기자

부안해경, 2025년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과 지도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연안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추진 배경으로는 지난여름과 같은 이상 기후와 긴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범위한 연안해역에 대한 안전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연안사고 예방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안안전지킴이는 2019~202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 결과 연안사고 예방 활동이 크게 효과를 보고 사고 발생률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해양경찰서는 하섬 해인기와 채석강을 연안사고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예비오토 1명을 포함해 총 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활동복과 활동비가 지급되며,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연안사고 위험이 높은 변산제도 채석강 하섬 등지에서 2인 1조로 배치되어 활동한다. 이들은 연안사고 예방순찰과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또는 해안안전과(063-928-2348), 변신고출소(063-928-22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영교 서장은 “지난해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총 300명(511명)의 인전지도 활동과 473건의 연안안전시설물 점검을 진행했다”며, “올해도 연안안전지킴이들과 함께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노암동, 남원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차미화)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7일 남원사회복지관(관장 강정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독사 예방 △시례편리 협력 △행복나눔 흥보 캠페인 등 참가장관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더불어 사는 복지미을 ‘노암동’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복지 시작자체 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원=길기두 기자

고창 농어촌공, 농지은행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간담회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임근준)는 지난 6일 지사 회의실에서 2025년 농지은행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소통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농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및 지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중점 제도개선사항 교육,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농업인들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농지 미려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참여 및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임근준 고창지사는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와 청년 농지 협력하고 소통하며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이 발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협 부안군지부, 175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부안군은 지난 7일 NH농협 부안군지부 및 군 출장소 임직원이 175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상원 NH농협 부안군지부장, 김성미 부안군지부 지점장, 유영수 단장, 이미숙 부안군청 출장소장이 부안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뜻을 모았다.

NH농협 부안군지부는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특히 2023년에는 700만원, 2024년에는 1,570만원을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조상원 부안군지부장은 “부안군과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장애인복지관,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

정읍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이기는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했다.

복지관은 지난 5일, 대한결핵협회·정읍시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X-ray 활영 검진을 진행했다.

이번 검진은 복지관에서 올해 새롭게 운영하는 건강자립이 사업의 일환으로 결핵 초기 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약 50여 명의 장애인이 검진에 참여했으며 복지관 내부에서 이동식 검진 장비를 활용해 간편하게 활영이 진행됐다. 특히 검사부로 같이 입을 필요가 없고 활체에 이용자도 불편함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검사를 통해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된 대상자는 보건소와 연계해 추가 정밀검사와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약국 변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7일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 약국을 기존 나은온누리약국(남부로 231), 화티약국에서 나은온누리약국과 새종로약국(중앙로 92)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종로 약국은 새종로약국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며, 매주 일요일은 휴무다. 공공심야약국은 3년째 운영중인 나은온누리약국은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며 둘째·넷째주 토요일 휴무한다.

시는 지난 2023년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로 처음 운영한 이후, 시민들이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전 출장약국과 병합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개소를 추가해 총 2개소로 확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